



1 고병원성 AI 양계업 강타

지난해 12월 12일 충북 음성 종계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발생이 공식 확인된 이후 3월 21일 경기도 양평을 마지막으로 7개도(충북, 충남, 경기, 전남, 경북, 경남)와 1개시(울산)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양계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고병원성 AI는 국내 뿐만아니라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심지어 양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까지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중 태국, 베트남, 중국은 지난 여름 다시 재발하면서 지금까지 양계업계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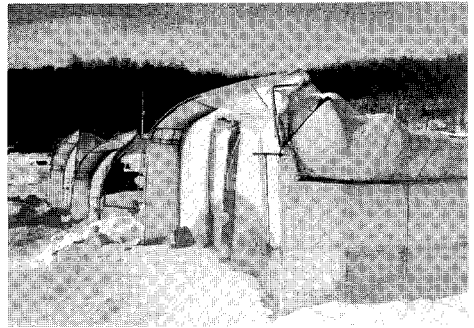
정부는 발생 즉시 10km 내의 모든 가검물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내리고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긴급 방역에 들어갔으며, AI발생 이후 소비가 50% 이상 급감하면서 양계산업의 어려움이 커졌고, 정부에서는 닭고기 수매사업, 시식회 등 소비홍보 사업을 통해 양계사업 회생노력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수매된 닭고기, 토종닭은 900여만수, 살처분된 가금은 500여만수로 집계되었다. 다행히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연초 6명의 사망자를 낸 베트남의 유전자형(염기서열)이 다르며, 유입경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양계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3월 이후부터 양계경기가 살아났고, 경기도 양주에서의 최종 발생 이후 6개월(9월 20일)이 경과함에 따라 청정국으로써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홍콩과 일본으로의 수출도 허락되는 등 양계업계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태국과 베트남 지역에서는 다시 HPAI가 재발하여 양계산업을 멎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HPAI가 발생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100년만의 3월 폭설 농가 피해 심각

지난 3월 4~5일 충청도와 경북, 전북 지역에 100년만에 내린 최악의 폭설로 그동안 HPAI로 어려움을 겪던 양계농가에 또다시 큰 피해를 입혔다. 본회가 12개 지회 및 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40개 회원농가의 347동(약 59,549평)이 파손되어 최소 44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31만수가 폐사한 것

으로 가집계되었다. 무너진 전체 280여개 육계사중 77%인 220동이 완파되는 등 육계사 파손이 심각하였다. 피해지역으로는 청주, 논산, 충주, 천안, 홍성이 가장 피해가 심하였고, 특히 보은 닭개식 계사, 무허가 계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설피해로는 유례없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원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2,700㎡규모 이상 농가에는 복구지원비와 용자혜택이 전혀 없어 해당 농가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으며, 지원면적에 대한 상한선 폐지 또는 특례 규정을 두어 구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다행히 본회를 위시한 생산자들의 항의로 그나마 1,800㎡이내의 농가로 제한되었던 지원 규모가 2,700㎡(약 818평)로 커지는데 만족해야 했다.



범국민적 양계업 살리기 운동 전개

HPAI발생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본회를 비롯한 농림부, 농협은 물론 각 언론매체들이 AI발생 이후 닭고기 우수성 및 시식회를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본회는 각 지회, 지부별로 닭고기 소비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농림부는 수요일은 '닭·오리고기 먹는날'로 정해 소비, 홍보활동에 나서는가하면 농협 및 백화점 등에서는 1+1 행사를 비롯한 특별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한편 KBS 등 언론사에서는 대규모 무료시식회와 연계하여 닭고기·오리고기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집중 방송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육계가격이 700원에 머물던 것이 일주일만에 1,500원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계란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HPAI 발병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 보도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지난해 12월 12일 HPAI 발생 이후 '조류독감', '인체감염' 등을 주요 내용으로 8개 일간지 700여회, 방송3사 1,600여회에 해당하는 용단폭격과 같은 국내 언론의 보도로 인해 양계업계는 업계가 태동한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면서 보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되고 있다.



20억 보험 등장

본회를 비롯한 4개 유관단체들은 HPAI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업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산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현대해

상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상금 20억원은 국내산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려 첫 감염자가 사망까지 이를 경우에 한하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치료비와 일부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보험은 잘 못된 보도 등으로 마치 닭고기를 먹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씻어버리고 닭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해 닭고기 소비를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험료는 3천668만원, 보험효력은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20억보험 등장으로 양계산업이 조기에 정상을 되찾는데 일조를 하였다.



5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 부각

웰빙바람과 함께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한해였다. 금년 6월 계란영양과 냉장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던데 이어 10월과 11에는 닭고기내 항생제 잔류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계란문제에 있어서는 영양강화 계란 중 일부가 영양소 함유량이 일반 계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계란이 실온에서 유통되면서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부각되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조사한 계육에서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유해성 세균까지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 이후 각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계란과 계육 판매 코너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계란과 닭고기 매출도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앞으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철저한 안전성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양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위생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지난해 말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농촌의 장기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 119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양계산업 종합발전대책이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양계분야 종합대책을 세우고자 학계, 연구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질병·위생, 시설·환경, 경영·수급, 검정·개량 등 4개분야 6개 T/F팀을 구성하여 1개월여 동안 각 팀별로 기본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 양계인 및 양계관련 인사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총 27건에 72개항의 양계분야 종합대책(안)으로 집약되었다. 본회에서는 계란, 닭고기 공판장 설치, 검정사업 개선 사업, 종계물량 쿠티제, 가금위생안전관리센터건립, 육계표준사육계약서 활용방안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시행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관련하여 과거 UR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인 농가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7 양계산물 고가(高價) 행진

계란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9월 생산자 가격이 특란 145원의 사상 유례없는 초고가를 형성하였고, 육계가격 역시 3월과 8월 kg당 2,000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HPAI 이후 급감했던 소비가 회복된 이후에도 장기간 고가시세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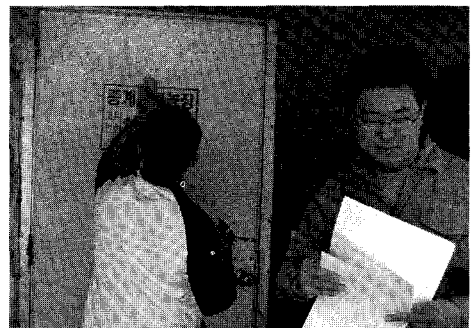
이 같은 원인으로는 금년 상반기 3차례에 걸쳐 30%가까이 오른 사료가격, 연료비, 병아리 가격 등 생산비가 상승한데다 HPAI에 따른 수입감소, 10여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종계 뿐만 아니라 실용계까지 생산성 저하 현상을 가져와 수급에 차질을 가져온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중 사료가격 인상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철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료곡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구하기 힘들어 선박운임비가 50% 이상 오른데다 사료원료가격도 인상되면서 취해진 조치로 이 같은 국제적인 무역동향은 향후 3~4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최근의 일시적인 가격하락과는 관계없이 차후 가격 상승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어 농가에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8 종계장 D/B구축 추진

금년 10월부터 전국 육용종계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정부,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육계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육용종계의 입식변동상황, 사육수수, 월령, 산란율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양계업 경영을 위해 수급조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원종계 및 종계 도태 사업 추진 등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왔고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실제 사육되고 있는 원종계와 종계수수를 파악하여 이를 자료화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종계장에서는 이 사업이 전국 종계장 온라인 구축망이 필요한 시점에 앞선 기초단계로 인식하고 각 종계장 경영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입 닭고기 저지운동 전개

HPAI 발생으로 인해 태국과 미국에서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정부에서 태국 등 8개국으로부터 가열 처리된 닭고기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면서 닭고기 수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인 및 관련단체들은 지난 5월 '우리닭고기 지키기 운동본부'를 정식 출범시키는 한편 지난 7월 7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육계인결의대회를 통해 수입 닭고기 반대 서명운동 및 국내 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행사 및 시식회를 실시하는 등 육계업 시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닭고기 지키기운동본부는 외래질병의 원인이 되는 외국산 닭고기 수입 강력 저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입장을 밝히고 계육업체, 외식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수입닭고기를 강력히 저지할 뜻을 밝혔다.

한편 토종닭연합회에서도 백세미 근절 및 수입닭고기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는 등 수입닭고기 저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남미로부터 닭고기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생산자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0 전 농가대상 양계업 등록 본격 착수

축산업등록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양계업 등록이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다. 계란집하업을 경영하는 업체(농장)는 지난 6월 26일까지 이미 등록신청을 마쳤으며, 종계·부화업은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300㎡(91평)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양계농가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해당 시·군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축산업 등록제는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국 도약의 계기를 마련키위한 제도로 허가 또는 무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 농가는 모든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연계하여 농림부가 축산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이를 토양에 환원시킬 경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닭은 사육형태와 용도에 따라 사육밀도를 등록제 기준보다 20~30%줄여야 하며, 출하전 일정기간동안 항생제를 쓸 수 없고, 정해진 기관에서 친환경 축산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축마리수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1수당 1,2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